

러시아, 독일과 채무협상 타결

1. 채무협상 타결내용

- 러시아는 4월 10일자 구소련시절 구동독으로부터 제공받은 현물차관 성격의 채무 5억유로(426백만달러)를 독일에 분할 지급
  - 3.5억유로는 금년에, 잔여분 1.5억유로는 내년부터 2년에 걸쳐 지급 예정
    - \* TR(Transferable Roubles)은 냉전시대에 사회주의 국가간에 기계류·플랜트 등 물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산정하던 일종의 청산단위(RGW : Rates für Gegenseitige Wirtschaftshilfe)로, 당시 구소련의 구동독에 대한 현물채무는 64억TR이었음
- 러시아는 구소련시절 독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인수한 트롤어선 인수대금 3.1억유로를 상환
- 독일은 대 러시아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현행 5억유로에서 10억유로 확대(독일 정부를 대신하여 공적수출보험기관인 Hermes에서 담당)하여 중소기업의 대 러시아 수출 및 투자를 확대
- 한편, 금번 협상과정에서 독일은 첨단 안전시설 장비, 의료기술, 가구산업 등 15억유로 규모의 러시아 경제개발 참여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합의

2. 협상타결의 의의 및 향후전망

- 양국간 채무협상과 관련하여, 그 동안 구소련의 현물채무 64억TR의 상환방법(적용통화, 적용환율 및 상환시기 등)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지금까지 전체 채무조정이 지연되어 오다가 금번에 타결되었는데, 이는 지난 90년 10월 독일 통일이후 12년만에 5차 정상회담을 거쳐 이루어진 것임

- 러시아의 대 독일채무는 파리클럽전체 채무의 48%인 192억불을 포함하여 총 530억불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40억불은 2016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2000년 6월 정상회담), TR은 파리클럽 채무와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여 왔음
- 그러나 독일은 러시아에 대하여 TR환율을 몽골·불가리아·체첸 등에 적용한 수준(1TR당 1.2유로)인 1TR당 1달러를 요구한 반면(이 경우 TR 채무는 총 64억달러에 이룸), 러시아는 40센트 이하로 주장하여 지금까지 타결이 지연되어 있음
- 이번 정상회담에서 독일은 당초 요구금액인 64억달러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5억유로에 타결함으로써 러시아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데도 대규모 채무를 탕감해 주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슈뢰더 총리에게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 푸틴 대통령은 최근 파리클럽 채무를 적기 상환하는 등 신뢰를 구축하고, 미국 테러사건 이후 서방국가와의 정치적 유대를 강화하면서 채무 상환규모 최소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정치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협상이 타결된 후 슈뢰더 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TR문제를 가지고 과거에 너무 집착할 수 없으며, 미래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푸틴 대통령도 그동안 TR 논의 과정에서 구소련으로부터 구동독에 제공된 원유 대가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기함으로써, 독일이 요구한 금액이 무리였음을 시사
- 한편 TR채무는 독일과 러시아간에 야기된 채무가 아니고,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국가(구소련/구동독)간에 냉전시대에 이루어진 채무로서, 동 TR 채무가 양국 경제협력에 더 이상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금번 TR채무 협상 타결을 계기로, 양국간 파리클럽 채무 등 여타의 채무협상도 진전되고, 독일기업의 대 러시아 수출, 투자 증대 등 경제교류도 더욱 확대되는 등 경제적 이익도 상당하여 긍정적인 요소도 큰 것으로

## 평가되고 있음

-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은 이미 냉전시대가 아니며 러시아는 서방국들과 공동으로 테러에 대응하고 있고, 신뢰성을 갖춘 동반자로서 서방진출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와 서방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여 이익을 확대하고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러시아의 WTO 가입과 러시아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특히 구소련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음.

<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

< 평 가 기 초 자 료 >

1. 사무소명 : 프랑크푸르트사무소
2. 활동구분 : 영업지원활동, 조사활동, 관할지역인사 접촉활동 등  
( ○ ) ( ) ( )
3. 본점요청 문서번호 : 사무소자체보고
4. 보고서 평가(관련) 부서 : 연불수출금융본부 (전대자금팀)
5. 보고시한 : -
6. 자료(정보)원 : 독일연방총리실, Handelsblatt지 등 현지언론
7. 입수(접촉) 경로 :
8. 자료수집(접촉)시간 : 2 일
9. 소요경비 :
10. 보고서 작성기간 : 4 시간
11. 기타 평가에 참고할 사항 :